

→ 동향브리핑

핀테크 사업을 강화하는 구글

I. Issue Summary

□ Key Summary

- 2011년 9월, 구글은 NFC 결제기능이 포함된 '구글 월렛' 서비스로 본격적인 핀테크 사업을 시작했다.
 - 스마트폰을 통해 직불카드, 신용카드, 멤버십카드 등의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.
 - 폰을 분실하거나 중고폰으로 판매할 때, 보안상의 허점을 드러내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.
 - 기본적으로 NFC 전용리더가 있어야 결제가 되는 방식이었기에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 - 시장에서는 '구글 월렛이 실패했다'는 평가를 하고 있다.
- 핀테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지난해 애플페이가 등장하면서 구글도 다시 한번 구글 월렛에 적극적인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.
 - 구글은 최근 모바일 결제 전문 기업인 '소프트카드'를 인수하면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여 구글 월렛의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임을 밝혔다.
 - 소프트카드는 미국 AT&T, 버라이즌, T모바일이 함께 설립한 회사로 단말기에 대고 두드리면 결제가 되는 '탭 앤 페이'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
 - 구글은 소프트카드를 인수하면서 미국 3대 이동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구글

월렛을 선택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.

-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구글 월렛이 선택재가 되는 셈이다.

○ **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(MWC) 2015에서 구글은 새로운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'안드로이드페이'를 공식 발표했다.**

-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페이는 애플페이처럼 보안 기능과 IC카드 기능을 통합하여 제공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다.
- 써드 파티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독립된 앱의 형태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된 앱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.
-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페이에 연결된 앱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시스템에 저장되고 해당 앱에서 결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.
- 아직은 파트너사들이 공식적으로 제휴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세계적인 신용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.

○ **안드로이드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앱 개발사들이 자신만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.**

- 기존 하드웨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결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휴나 시스템 준비를 할 필요없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.
- 블루투스나 NFC를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지문인식 같은 생체인식을 이용한 보안 기능도 추가가 될 예정이다.
-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'탭 앤 페이' 방식으로 비용 지불이 가능해진다.
- 선다 피차이 구글 부사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○ **구글은 안드로이드페이와 구글 월렛을 동시에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기로 보인다.**

- 구글 월렛은 자체 서비스로 선택재를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안드로이드페이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아 고유한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.

- 안드로이드페이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현 시점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5월 열릴 예정인 구글개발자회의 I/O 2015 기간 중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□ Source

- [MWC 2015] 구글, 새로운 모바일 결제 플랫폼 출시
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5/03/04/2015030401295.html
- 안드로이드페이는 모바일결제 프레임워크
<http://www.etnews.com/20150304000004>
- 불붙은 모바일결제 전쟁.. 구글, 美 3대 통신사에 '구글페이' 선택재
<http://economy.hankooki.com/lpage/worlddecono/201502/e20150224134115117900.htm>
- [이슈 앤 뷰] 핀테크 뛰어든 구글... 국내 시장 평정하나
<http://economy.hankooki.com/lpage/it/201503/e20150301173402117720.htm>
- 구글페이 vs 애플페이 vs 삼성페이, 당신의 '페이'는?
<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5030316331215537&outline=1>

II. Issue Analysis & Commentary

- **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시장**
 -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ICT 강자들이 관련한 상품을 내놓고 인수나 제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
 - 애플페이는 현재 NFC 방식만 지원을 하지만 특유의 사용자 충성도를 기반으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.
 - 삼성전자는 기존의 갤럭시 월렛과 별도로 이번 MWC 2015를 통해 삼성페이까지 발표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
 - 구글로서는 가장 큰 경쟁사인 애플은 물론이고 삼성도 무시하지 못한 상대이다. 또한, '페이던트'를 인수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과 같은 로컬 강자들과도 경쟁해야 한다.
 -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닌 안드로이드페이를 이번에 공개한 것도 삼성을 의식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.

○ **안드로이드의 지배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**

- 단일 서비스인 구글 월렛은 사용자 보급이 최대의 숙제인데 이번 소프트카드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낼 것으로 보인다.
-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지배력을 높이고 싶은 구글로서는 안드로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플랫폼을 이번에 내놓았다.
- 일반 소비자 대상의 서비스가 아닌 기존 안드로이드 개발 생태계를 목표로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략이다.
- 하지만,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플랫폼에 내재되면서 안드로이드가 무거워지고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마찰을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요소가 된다.

○ **플랫폼 중립성의 화두가 재개될 듯**

-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자와의 마찰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플랫폼 중립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.
- 앱의 설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마케팅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일반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글의 위와 같은 시도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.
- 특히, 트래픽이 실제 수익과 직결되는 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러한 번들 관행에 대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.
- 결제 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.

○ **국내 시장은 미지수**

- 국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안드로이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구글의 핀테크 시장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- 관련 앱이 선택재가 되고 플랫폼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핀테크 시장이 구글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.
-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크고 금융 기업들도 각자의 로드맵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아 제휴처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- 또한, NFC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는 이미 국내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

구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.

○ 향후 전망

- 구글을 포함한 대형 사업자들은 모두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.
- 안드로이드의 지배력을 이용해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구글의 전략은 북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능성이 높다.
- 금융 기업이나 오프라인 상점과 같은 제휴처를 확보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고 구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.
- 국내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제휴사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의 지불 행태를 바꿀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.